

“재도약 약속 반드시 이뤄”

강임준 군산시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받고 민선 8기 준비 본격 돌입

재선에 성공한 강임준 군산시장이 13일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민선 8기 준비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권선대행 기간 중의 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달 1일 민선 8기 출범에 앞서 군산시 경제 대도약을 이끌어 낼 새로운 4년의 이행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 시장은 국소장 및 간부공무원 80여명과 함께 부재중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방향 검토와 시급한 현안 해결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군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시설보수 공사 상황 및 협력사 선정, 인력모집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를 통해 당초 내년 1월 가동 재개 목표를 올해 10월로 단축시킬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전기차 클러스터의 기반이 되는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등의 상황도 공유하면서 24년까지 총 5,412억원을 투자하여 누적 32만대 전기차를 생산해 임기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세계 최대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RE100 산업단지 기업유치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의 도약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배달의민족 온라인 종합쇼핑몰 구축,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신축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점 현안 진행 상황도 면밀히 검토했다.

이를 통해 민선 7기 역점 사업들을 완수하고 민선 8기의 시작과 유연하게 연계시켜 군산시 경제 재도약의 실행력 확보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강 시장은 “현 시점에서 민선 7기 주요 현안들이 어느정도 이루어졌고, 추진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향후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서 민선 8기 공약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익산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으로 관광 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점’

익산 슨리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지역경제활성화’ 나서

익산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으로 관광 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국가등록문화재인 ‘익산 슨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존관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존·활용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협력방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 등의 다양한 콘텐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스�리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활성화와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지난 2019년 공모사업(364억원) 선정과 더불어 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142억원), 익산문화도시 거점공간 조성사업(8억6천만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부서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조정 및 관리 역할을 하는 기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7개 관련 부서로 슨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관리 추진단을 구성했다.

아울러 공간 조성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녹지공간 조성,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정, 노후 빈집 정비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슨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탐방거점공간, 문화공방 조성 등을 추진하고 토지매입과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스�리근대역사문화공간이 가지고 있는 인문적·지리적·문화적 장점을 활용해 성공적인 도시재생과 문화재로서의 높은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관광 명소를 조성하겠다”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 대도약 이룰 민선8기 준비 철저’

정현을 시장, 국가예산 확보 위한 전방위적 총력 지시

정현을 익산시장이 13일 “민선 7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민선 8기의 출범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간부 회의에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민선 7기 현안 사업 마무리와 민선 8기 출범에 공약 사업 추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주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한다”며 “주민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민선 8기에 반영하고 긴급한 민원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단없는 익산 대도약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민선 7기 4년동안 모두가 노력해준 덕분에 신성장동력을 이끌 국가예산 확보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순기 단계에 중앙정부에 전략적 대응과 함께 전략적 대응은 물론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전방위적인 총력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 시장은 “지역 내 대규모 사

업들이 곳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확고한 안전대책 수립과 실천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다”고 강조하며,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뿐만 아니라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근 가뭄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에 대비하고 폭염전망에 따른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명신·대상, 지방세 모범납세 법인 도지사 표창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주식회사 명신 군산공장과 대상(주) 군산공장이 2022년도 모범납세 법인으로 선정돼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표창을 받은 두 법인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 없이 매년 3건 이상 5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으로 지방세 납부액, 지역경제 기여도 기부 및 봉사활동 등의 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시의 공적 심사 후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표창장 수여는 지난 10일 군산시청



에서 두 기업을 대표해 명신 박호석 부시장과 대상 김중호 지원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식회사 명신 군산공장은 연간 최

대 20만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전기차 생산 기반 공장으로 2019년 군산에 공장을 설립한 후 군산형 일자리 핵심 기업으로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등 전북도와 군산시 발전에 기여해 왔다.

대상(주) 군산공장은 1985년 공장 설립 이후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로 국내 최대규모의 전분당과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 라이신 생산을 담당하며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그간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

/군산=김관근 기자

익산시, 시민 체감 복지서비스 제공 ‘총력’

익산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수준과 욕구 변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보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5기(2023년~2028년)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시는 공공·민간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사회보장추진 전략과 세부 사업을 설정할 계획이다. 아동과 성인을 포함한 지역 내 돌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등 총 10개 영역의 지역 의제를 발굴한다.

특히 상향변화에 따른 수정·보완 절차가 없어 계획수립과 시행 과정 간 연계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4기 계획의 한계를 보완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보장정책발표, 팬데믹 등 지역사회보장 관련 환경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설정할 예정이다.

시는 TF팀 구성, 계획수립 모니터링,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제5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시민에게 듣다’ 시장과 특&특 재개

군산시는 ‘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특&특’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단되었던 시민과의 대화를 오는 24일 금요일 14시에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실시한다.

시장과의 특&특은 2018년부터 4년간 24회를 실시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주민들의 염원과 요구를 현장에서 느끼고, 시민들의 삶의 현장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을 체험함으로써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추진했다.

시민 A씨는 “올 초부터 시장과의 대화가 중단되어서 많이 아쉬웠다”며 “오랜만에 재개되는 특&특에 참여하여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익산시, 청년창업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익산시 청년센터 청춘에서 온라인 쇼핑물 창업가를 육성한다.

센터는 오는 24일까지 청년창업아카데미 ‘스마트 스토어 기초 입문’에 참여할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아카데미 ‘스마트 스토어 기초 입문’ 과정은 (예비)창업자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강화와 전자상거래 채널 구축, 상품등록,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실제 청년 창업가들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은 △1차시 ‘온라인 창업 전, 준비자들을 위한 꿀팁! 마인드’ △2차시 ‘스마트 스토어 개설 실습’ △3차시 ‘플레이오로 활용’ △4차시 ‘스토어 디자인 제작 순서’로 진행된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8일까지 매주 목·금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관내 거주 중인 만 18세~39세 청년(예비) 창업자는 익산청년센터 청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익산청년센터 청춘 ☎50-73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